

국내 제약바이오, H 고령화·만성질환 시장 기회 노린다

시지바이오 척추 임플란트 공략
GC지놈 다중암 조기진단 본격화
삼성바이오에피스 시밀러 판매
카카오헬스케어 당뇨 서비스 진출

일본 시장을 겨냥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신약개발은 물론, 의료기기와 바이오 시밀러에서 차별화된 K제약·바이오의 기술력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9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대웅그룹의 특수관계사인 바이오 재생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가 일본 척추 임플란트 시장에서 '노보맥스 퓨전'을 정식 출시한다.

노보맥스 퓨전은 경추유합술용 케이지로, 시지바이오가 자체 개발한 신소재 'BGS-7(칼슘·실리카·인·붕소 조성)'이 적용됐다. 이 신소재는 생체 활성 유리세라믹 성분으로, 별도의 골이식재 없이 안정적인 골유합을 유도한다.

시지바이오는 일찍이 2023년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서 '노보맥스 퓨전'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또 올해는 일본 대표 중견 제약사 니혼조끼 제약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본 진출을 준비해 왔다.

시지바이오는 향후에도 일본에서 후속 제품을 지속 선보일 계획이다.

시지바이오는 "일본은 세라믹 소



지난 3월 일본 현지에서 '아이캔서치'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GC지놈

재 척추 임플란트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시장"이라며 "확장형 케이지 '엑센더' 등 척추 임플란트 제품군의 수출을 본격화해 시지바이오의 기술력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액체생검 및 임상 유전체 전문기업 GC지놈도 올해 4월부터 일본에서 '아이캔서치'를 선보이고 있다. '아이캔서치'는 GC지놈 대표 제품으로, 혈액 10ml로 대장암, 폐암, 간암, 췌장암, 식도암, 난소암 등 6종의 암을 동시에 선별하는 다중암 조기 스크리닝 검사다.

GC지놈은 올해 들어 일본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일본 소재의 GC그룹 계열사 GC립포텍과 파트너십을 구축

했고, GC립포텍을 통해 일본 병원, 연구소 등에서 기업 영향력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특히 현지 임상 연구와 기술 개발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GC지놈은 독자 개발한 기술에 대

한 원천 특허를 등록하고 있다.

최근 특허 등록된 'FEMS' 기술은 아이캔서치에 적용된 핵심 기술로, 혈액에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암세포 DNA 조각을 탐색해 암 조기 진단율을 높여준다. GC지놈이 직접 설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도입된 것도 특징이다.

지난 4월에는 인공지능 기반 비침습적 미세잔존암 검출 기술 'G-MRD'에 대한 특허 등록도 마쳤다. 해당 기술은 암 재발 여부 감지, 치료 효과 평가, 예후 예측 등에 활용 가능한 것으로, GC지놈은 정밀 의료 분야에서 기술력을 확보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 의료기기 시장뿐 아니라 의약품 시장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새 먹거리로 주목받는다.

국내 대표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최근 일본 니프로 코퍼레이션과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

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제품 생산과 공급을, 니프로는 판매를 담당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파트너십 계약이 일본 시장 진출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잠재력을 크게 평가한 것으로, 일본 현지 업체를 통해 자사 바이오시밀러 상업화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HK이노엔은 올해 3월 일본 화이자 제약 출신 연구진이 설립한 신약개발 기업 '라퀼리아'를 인수했다. HK이노엔이 개발한 국산신약 케이캡의 판로를 확대함은 물론,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도 추진한다.

카카오헬스케어, HLB그룹 등은 일본 헬스케어 시장에서 전략적 투자를 확대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지난달 일본 법인 'KHC 재팬'을 설립했다. 일본 당뇨 인구를 대상으로 현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HLB그룹은 일본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ACA의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 'ACA 넥스트' 지분을 인수했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이미 선진 제약 국가인 것은 사실이지만,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추세, 헬스케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서는 국내 상황과 유사하게 발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보니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쟁과 협력의 기회가 공존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비타그란 '비타민C 분말'

/동아제약

동아제약

비타그란 비타민C 새단장 오렌지 상징, 브랜드 강화

동아제약은 비타민C전문 브랜드 비타그란에서 '비타그란 비타민C 분말'을 재단장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동아제약은 비타그란이 비타민C 브랜드임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제품 중앙에 오렌지를 반으로 자른 상징물을 배치했다. 분말 제형을 쉽게 표현한 그래픽 디자인도 특징이다.

비타그란비타민C분말은 1포에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000%에 해당하는 1000mg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평소 과일과 야채 섭취가 부족하고 영양이 불균형한 현대인들이 해당 제품을 섭취해 여러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포도테라퓨틱스, R-스폰딘 대체 오가노이드 배양 특허

고비용 단백질 없이 암 오가노이드 형성
TCTP로 오가노이드 형성 효율 6배
정밀의료·약물 스크리닝 활용 기대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바이오벤처 포도테라퓨틱스가 암 오가노이드 배양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신기술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기존 오가노이드 배양에서 필수적이라 여겨졌던 고가 단백질 R-스폰딘(spondin)을 대체할 수

있는 'TCTP' 기반 배지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정밀의료 및 항암제 스크리닝 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R-spondin은 오가노이드 형성에 관여하는 Wnt 신호 경로를 조절하는 핵심 물질로, 오랫동안 줄기세포 및 오가노이드 배양의 표준으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복잡한 생산 공정과 수백만 원에 이르는 단가, 실용성 부족 등의 문제로 연구자들과 기업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컸다.

포도테라퓨틱스가 출원한 특허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TCTP를

포함한 배지 조성물을 제안한다. 회사는 흉수 및 복수 유래의 폐암, 위암, 간암 오가노이드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TCTP의 효능을 입증했다. R-spondin 없이 TCTP를 포함한 배지로 배양한 오가노이드는 세포 생존력(ATP 기반), 오가노이드 형성 수, 유전체 유사도 등 주요 지표에서 R-spondin 기반 배지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였다.

특히 TCTP를 적용한 위암 오가노이드 배양에서는 R-spondin 사용 대비 약 6배 이상 많은 수의 오가노이드가

형성됐다. 또 위암 조직 및 오가노이드 간 유전체 분석 결과에서도 88% 이상의 높은 유사도를 유지해 실제 환자 암 조직의 생물학적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배양 효율 향상과 함께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포도테라퓨틱스 김정은 상무(CTO)는 "이번 특허 기술은 고비용 단백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오가노이드 생산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lee@



이디야커피 '생과일 수박주스' 관련 상품군 이미지.

/이디야커피

이디야커피

생과일 음료 '흥행' 판매량 120만 돌파

이디야커피가 지난 5월 선보인 생과일 음료 3종이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120만 잔을 넘어섰다고 29일 밝혔다.

무더위에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디야커피에 따르면, 전국 평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른 최근 일주일간 생과일 음료 일 평균 판매량이 3만 8000잔을 기록했다.

대표적으로 가장 큰 판매량을 올린 제품은 '생과일 수박주스'다.

이디야커피는 올해 기본 제품 용량을 레귤러(R)에서 라지(L)로 확대하고, 엑스트라(EX) 사이즈 선택 항목도 함께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음료 시장에서 두드러지는 대용량 선호 추세에 발맞춘 전략으로, 보다 넉넉한 용량으로 고객 만족도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LG생활건강 "여름철 빨래 고민 끝~"

'모락셀라 냄새제거 캡슐세제' 출시

LG생활건강은 고급 세탁세제 브랜드 피지에서 여름만 되면 더 심해지는 빨래 냄새 제거에 특화된 신제품 '모락셀라 냄새제거 캡슐세제'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새로 선보이는 모락셀라 캡슐세제는 '모락셀라 부스터'와 액체 세제를 합친 혁신 제품으로 냄새와 얼룩 제거력을 모두 갖췄다. 액체 세제를 먼저 넣고 부스터를 추가하는 기존 세탁 방식보다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다.

성능면에서도 모락셀라균을 99% 제거해 악취를 없앤다. 모락셀라균은 젖

은 수건이나 땀 범벅이 된 운동복, 신고 벗은 양말 등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빨래 냄새 원인균이다. 또 기존 자사 세제 대비 세정 성분을 12배 더 농축한 용액이 얼룩을 관리하고 변색을 방지해 준다.

이와 함께 더해진 고급스러운 '베르가못&샌달우드' 향이 건조기 사용 후에도 14일 간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LG생활건강 피지 브랜드 담당자는 "냄새에 찌든 빨래를 마치 새 옷처럼 살려내는 모락셀라 캡슐세제만의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동아쏘시오, '삼각 성장엔진' 본격 가동

ADC·올리고·바이오시밀러 강화
미래 의약품 생산 플랫폼 확대

동아쏘시오그룹이 신약개발부터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차세대 바이오 분야까지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에서 다양한 성장 기반을 확보해 그룹 경쟁력을 높인다.

29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 에스티젠바이오, 에스티팜 등은 동아쏘시오그룹 내 가치사슬을 이뤄내고 있는 주축이다.

3사는 지난 16~19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바이오 인터내셔

널 컨벤션 2025'에서도 공동 부스를 설치해 각사의 경쟁력을 알렸다.

우선 동아에스티는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고 제약 기업 본연의 신약개발에 중점을 둔 역량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기회를 모색했다.

동아에스티는 전문의약품 전문기업으로 면역항암제, 비만 치료제,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치료제 등 폭넓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또 항체·약물접합체(ADC) 전문 자회사 엠티스를 통해 독자 기술을 개발하는 등 ADC 신약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